

끝내 좌초하고 만 진보주의적 시간관

서양철학은 시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김영민 | 전주 한일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궁극적으로 서양의 시간관은 진보적 역사 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어 왔다. 그러나 탈근대성의 논의에서 강조됐듯, 이미 진보의식은 서구적 낙관주의를 지탱하는 그릇이 되지 못한 채 퇴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전대미문의 폭력과 광기로 점철된 지난 세기의 역사가 서양의 우울한 자화상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현인 스피노자는 시공간의 조건을 넘어서 영원의 상(相)에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삶의 영고성쇠에 이리저리 시달리는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가 삶의 발본을 음미하는 성찰궁리(省察窮理)의 존재라면, 영원의 빛 아래 그림자 없는 진상을 육신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리라.

정신주의의 극한에서 신과 내통하고자 하는 플라톤적 관념론은 서구의 탈시간적 본질주의의 원형을 그려준다. 또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수 신비주의(number mysticism)에서 연원하는 전통은 스피노자와 케플러 등 근세의 사상가들이 수학, 혹은 기하학과 영원을 내밀하게 결속시켰던 배경을 설명해준다. 흄스·파스칼·스피노자·데카르트·라이프니츠·뉴턴 등은 모두 기하학적 사유에 열광했던 인물들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기하학이 모두 인간 이지(理智)의 극점에서 만나는 영원한 신의 로고스와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결부돼 있다는 사실이다.

칸트에 이르러 혁명적인 시간관 정립돼

시간 그 자체가 널리 주체화되려면 당연히 사회변동의 템포를 통한 시간체험이 필요한 법. 그런 뜻에서 중세의 시간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보듯이 수직적 심리학의 틀 속에 머문다. 아는 대로, 르네상스 이후 근대의 학문과 사상은 피타고라스-플라톤적 사유에 힘입은 바 적지 않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에게서 물려받은 기하학적 방법(more geometrico)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관을 그대로 답습한 상태에서 개화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지카》 제4권에 나타난 시간개념은 한마디로 선후관계를 드러내는 '운동의 수(數)'인데, 당연히 이것

은 공간적 양화의 잣대로 기능하게 된다.

순환론적 역사철학을 제기한 (그리고 수학의 권위를 과소평가한) 비코(1668~1744)를 제외하면 헤겔 시대 이전까지의 근세 철학자들은 뉴턴의 휘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적 시간관을 대체로 여과없이 따르는 편이었다. 그러나 칸트에 이르러 서구의 현상론적-외재적 시간관은 일신되며, 가히 철학적 분석의 정치함에 걸맞는 위상을 얻게 된다. 그는 물리학/심리학의 범주에서 노닐던 상식적 시간관을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식으로 뒤집어 인식주관의 형식, 나아가 감성(Sinnlichkeit)의 형식으로 취급한다. 시간은 선험적 순수직관이며, 따라서 절대적이 아닌 경험적 실재(empirische Realität)만을 지닌다.

근대적 시간관의 배경으로서 역사 의식이 전면화된 것은 아무래도 서구의 계몽주의와 관련된다. 계몽주의의 지형을 수놓은 태도와 발상은 다양하지만, 니체의 표현처럼 "피안과 영원의 모래 속에 코를 박고" 있기를 거부하고 이 땅위에서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한 합리적/과학적 진보의식이야말로 서구의 근대성을 발현시킨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가속된 근대 역사학의 발전은 이런 진보적 역사 의식의 체감이 널리 파급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중세를 잠식시켰던 그 영원성의 음울한 정체감은 자율적 개인의 능동적이며 합리적 진보의 체험을 통해서 차츰 불식돼 갔던 것이다.

이것은 늦각이로, 그리고 타율적으로 서구식 근대화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간 우리의 경우에서도 그 예증을 찾기 어렵지 않다. 사실 시간 의식의 새로운 템포와 구조를 통해서 근대성의 성격을 따지는 연구는 근자 우리 학자들의 논저에서도 드물지



지금의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의 템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 사진은 기차역의 시계와 사람들. <시간>(영림카디널)에서.

않게 보인다. 가령,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통해서 억압적으로 규격화된 군국주의적 산업전시형 인간이란 바로 타율적-체제순응적 시간표를 통해서 그 현실적 태도와 위상이 정해진다. 이 점에서는 학교교육의 체제도 다를 바 없다. 홉스의 말처럼 국가는 감시와 통제의를 신경망처럼 체계화하며, 이 경우 근대적 시간의 식을 몸 속에 주입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내면까지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다. 따라서 국가의 자본과 체제의 경성(硬性)을 넘어 심층근대화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타자화된 이

시간의식을 뒤집어 우리 실존과 심층의 시간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느림'의 문화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조짐으로 읽을 수 있다.

직관주의적 시간관 펼친 베르그송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식의 절대적-공간적 시간관은 수학적 공간관과 더불어 근대 물질과학문명의 형이상학적 토대로서 나름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수준의 인문학 국가였던 조선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결국 19세기를 흥청망청 보내버리고 서구 열강에 차례로 먹힌 것도 소급해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런 시공간관이 지닌 일차적 실용주의의 효용성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이 수확주의와 공간주의는 19세기말 이후 다양한 인문학적 반발과 보안을 겪는 중에, 베르그송이라는 시간철학자를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변화한다. 그는 공간화된 시간을 배경으로 지성의 분할을 통해 영원의 상을 구하려던 과거의 형이상학적 전통과 결별하고 지속의 관점에서 직관주의적 시간철학을 전개한다. 시간과 자아를 탈공간적-탈명사적으로 재구성, 그 상호침투성에 주목하며 지속을 모든 철학의 존재론적 근거로서 제시했다. 베르그송(1859)과 동시대인이었던 화이트헤드(1861)의 이른바 과정철학(process thought)도 급변하는 산업화, 근대화의 와중에서 인간과 세상 사이에 점증하는 상호연관성에 주목했다. 동시에, 공간이 장(場)으로 대체되거나, 까르노, 헬름홀츠 등에 의해서 물체가 에너지로 재구성되는 당대의 과학적 정황도 이 시간철학

의 생성에 이바지했다.

20세기 새로운 물리학의 등장으로 시간개념이 공간과 내적으로 결합하면서 시간과 공간 사이의 오랜 대립은 일단 원칙적으로 종언을 고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통합은 거대한 분열의 시대인 근대를 통전시키는 실전적 지침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 20세기가 낳은 또 하나의 신화로서 단지 교양 있는 근대인이 지닐 하나의 관념으로 머물고 있다.

위기에 봉착한 서구적 낙관주의

20세기는 무엇보다도 근대화의 동인이었던 진보의 믿음이 갈갈이 찢긴 시대, 홉스봄의 말처럼 '극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조화로운 진보의 청사진이 파괴된 시대였다. 이는 대로, 서구에서의 진보의식은 근대 서구인들이 휴머니즘의 주체 의식을 기반으로 중세의 종교적 정체(停滯)와 고대를 동경하는 사상적 귀소성을 차례로 극복하면서 힘겹게 얻어낸 정신의 정향(定向)이다. 이것은 서구적 자의식이 역동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엮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탈근대성의 논의에서 강조되듯, 이미 진보의식은 서구적 낙관주의를 지탱하는 그릇이 되지 못한 채 도처에서 퇴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흑자들이 역사의 종언을 알리는 꽤 체계적인 담론을 흘리는 사이, 세기말의 집단 들림병에 취한 대중들은 투박한 의사(擬似) 종교적 소문에 홀리고 있기도 하다.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술과 산업의 시대인 19세기는 여러 체제와 이념을 대립·분열시켰고, 이 같등은 전대미문의 폭력과 광기의 결과를 확산시키고야 말았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인 1차 세계대전만으로도 진보의식에 실린 서구적 낙관주의는 심각하게 균열되고 말았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묵은 소문이 되고 만 지금, 수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첨단과학기술의 이중적 전망과 생태의 가파른 위기 또한 인류의 미래의식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비유처럼 지금의 인류는 역사의 그 어떤 시점에서보다도 시간의 템포를 뚜렷이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나 날로 강도를 더해가는 템포만 있을 뿐, 그 템포에 실린 에너지와 열정을 조화롭게 순화시키며 미래 삶의 지평을 전망할 수 있는 길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속도주의'의 요체가 바로 그것이다. 자기열정에 취해서 콩닥거리는 수많은 삶의 에너지들 뿐. 이들이 함께 어울려 엮어나갈 미래의 시간지평은 어디에 있는가? ●